

부산 시너공장 화재

인근 페인트 공장으로 번져 ... 건물 6개동 소실에 재산피해 3억원

부산에 위치한 시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3억여원 피해가 발생했다.

6월11일 오전 1시33분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 시너 제조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.

불은 공장 건물에서 시작돼 인근 공장으로 빠르게 번져 건물 6개동이 불에 타 3억2000여만원의 재산피해(소방서 추산)를 내고 오전 5시14분 경 진화됐다.

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.

목격자는 “집 옥상에 있는데 500m 정도 떨어진 공장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큰 불길의 치솟아 119에 신고했다”고 말했다.

소방당국은 “불이 난 곳은 시너 및 페인트 공장들이 인접해 있어 인화성 물질 때문에 불이 빠르게 번졌고 진화하기도 어려웠다”고 말했다.

소방당국과 경찰은 시너공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6/11>